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9. 9. Vol 260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처서(處暑)

꽃피던 날들이 언제였던가,
뜨겁던 여름날도 어느새 다 지나갔구나,
바람이 벌써 어제하고 다르네, 중얼거리며
쓸쓸한 기운을 털어내는 아침
놀랍게도, 밥상머리에 앉은 아들이 대꾸를 한다.

“오늘이 처서잖아요.”
“니가 처서를 다 알아?”
“모기 입이 돌아간다는…….”

올여름엔 구경도 못 한 모기까지 들먹이다니
제법이다, 땅에선 귀뚜라미 등에 업혀 오고
하늘에선 뭉게구름 타고 온다더니
올해 처서는 갓 스무 살 지난
아들의 말끝에 묻어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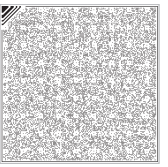
좋은 날이다, 꽃피는 시절은 지나간 게 아니라
아들놈 얼굴로 옮겨간 거로구나!
입춘, 청명, 하지, 처서, 모든 날들은

한 밥상에 뒤엉켜 있는 거로구나!
천기(天氣)가 크게 바뀌는 때,
순다섯의 또 한 절기를 돌아가며
여름의 뒷모습처럼 꿈지가 허전한 중에도
기꺼운 미소가 조용히 피어나는 아침.



류 정 환

- 1992년 월간 《현대시학》 추천
- 한국작가회의, 충북작가회의 회원
- 도서출판 고두미 대표
- 시집 『상처를 만지다』 외, 산문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9. 9. Vol 260

Contents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대회

충북도의회는 8월 6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 경제보복 강력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 아베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 04 | 제374·375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일본 경제보복 규탄 성명·결의대회
- 08 | 제천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 09 | 예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 10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미세먼지 대책 특위 활동
- 11 | 북부지역(제천) 미래교육을 위한 정책 토론회
- 12 |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 · 교육균형발전 간담회
- 13 | 의정학술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14 | 우수의정대상 시상
- 15 |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상황
- 22 | 제374·375회 임시회 주요 처리의안
- 24 | 5분 자유발언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원논단 · 의정일기

- 발 행 일 : 2019년 9월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선배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 구독신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는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제374회 임시회와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제375회 임시회를 열어 예결·윤리특위 구성과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하고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374·375회 임시회

충북도·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등 민생 현안조례 의결 특위구성 및 제천 화재참사 해결 특별법 제정 등 촉구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1일간 제374회 임시회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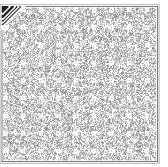
또한,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이송하고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7월 9일 실시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 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다.

이어, 허창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우리가 도와야한다'를 주제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등의 조속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고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7월 19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옥규·오영탁·이상식 의원은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충청북도 공무원 육아문제는 너무 사소한가?’, ‘지속가능 친환경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도비 지원 촉구’, ‘충북의 경쟁력, 생활 속 친일잔재 청산이 우선’을 주제로 개선을 촉구했다.

장선배 의장은 “그동안 도의회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의정활동 결과가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또,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3일간

제375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반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등 1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8월 21일 실시한 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했다.

이어, 이숙애·김기창·최경천·허창원·윤남진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정책의 재정립 △안전1등 충북을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청년이 우리의 미래 △대형유통업체 유치, 현도면이 대안 △목도교 폐교 방침 전면 백지화 등을 주제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8월 27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5조3455억30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1개 사업에 1380만원과 세출예산 3개 사업에 1억6256만원이 삭감됐다.

개회 마지막 날인 9월 2일 실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임영은·박상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충북 백년대계를 위해 중부권 광역 철도노선 조속히 건설하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노력을 주제로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일본 아베정부 수출규제 즉각 철회하라” 성명·결의대회

충북도의회, 일방적 백색국가 제외·경제보복 강력 규탄



충북도의회는 8월 6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부가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킨 일방적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하는 ‘일본 경제보복 강력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명분 없는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충북도의회는 8월 6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부가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대한민국을 제외시키는 일방적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하는 ‘일본 경제보복 강력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상식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는 8월 2일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배제 규탄 성명서’ 발표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허창원 의원과 이옥규 의원의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으로 이어졌다.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경제보복을 중단할 때까지 163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해 관련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와 충북도에 대해서는 피해 예상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와 소재·부품산업 육성, 경제체질 개선 노력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도의회는 또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본의 해당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일본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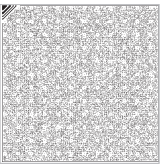
이와 관련 장선배 의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제로 겁박하는 불량 국가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행위”라고 규정짓고 “일본 아베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세계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또 “충북도의회와 의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중단될 때까지 163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8월 2일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을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 일방적·보복적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반도체분야 수출규제 사유로 내세운 것은 모두 근거조차 없는 경제보복 행위이며 WTO 등 국제규범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히며,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자유무역과 세계경제분업의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일본은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결국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충북도에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냉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하며 장기적으로는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과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의장 아베정부 경제침략 행위 철회 촉구

또,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월 12일 서울 소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역의원들과 함께 일본 아베정부 내정간섭과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련의 경제적 조치들이 아베정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명분 없는 경제침략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은 국제분업 기초 위에 형성된 국제자유무역 질서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사실상 경제를 무기로 한 침략행위”며, “광역 시·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업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집행기구와 협력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피

해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제375회 임시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조례안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표시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전체의원이 공동 발의해 제정하며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친일잔재 청산에 앞장섰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의원들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의원들과 함께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경제침략 행위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일본은 경제보복 즉각 중단하라”

지난 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소재 수출을 규제·강화하는 한편, 화이트 리스트 27개국 중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제외하며 충성없는 경제공격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21세기 첨단산업 소재의 수출규제 행위는 모두 근거조차 없는 경제보복이며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과 세계경제분업의 국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일본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없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경제로 압박하는 국제적 불량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해왔으며, 특히 이번 수출규제는 일본이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위반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적 보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경제보복 속에서도 우리정부는 한 달여의 시간 동안 한-일 관계회복을 이루려 노력했으나 일본 정부는 소통과 대화를 일절 거부한 채 일방적인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충청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각종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청북도의회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중단할 때까지 163만 도민과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비롯해 관련 조례 제정 등 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충청북도에는 일본의 비상식적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냉철하게 대처하고 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과거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8월 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제천 화재참사’ 국가차원의 지원대책 방안 마련 촉구

도의회, 제천 화재참사 해결 특별법 제정 건의문 채택

충북도의회는 7월 19일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가 이번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지난 3월 소방 현장 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족 측에서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로 행정처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 측과 충북도와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

됐으나 도지사의 책임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호 의견 차이로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 따른 것이다.

지휘체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가는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 대응활동, 수습 등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함께 부여받고 있는 데다 이번 제천 대형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인식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 도의회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천 화재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제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충북도와 유가족 대표 간에는 위로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계속해 왔으며, 충청북도의회도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하루빨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소방 현장 지휘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족 측에서 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되고 소방공무원 징계의결(19. 4. 22)로 행정처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족 측과 충북도와의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책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호 의견 차이로 협의가 결렬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에 도지사는 재난의 수습 등을 총괄하고 소방사무에 대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는 현장지휘관이 최종적으로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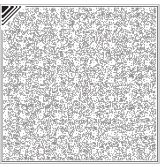
굳이 지휘체계를 따지지 않더라도 국가는 재난의 예방과 긴급구조 대응활동, 수습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함께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보아온 것처럼, 제천 화재 참사 해결을 위한 충북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제천 화재참사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9년 7월 1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위원 선임

내년 6월까지 활동 ... 효율적 자원 배분·집행감시 등 노력



충북도의회는 7월 9일 실시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제11대 의회 제2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선임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및 상임위원회 안배 등을 감안해 선임된 특위위원들은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엔 박형용 의원이, 부위원장엔 이상정 의원이 각각 선임되고 위원에는 육미선·이상욱·허창원·연철흙·정상교·이상식·하유정·윤남진·오영탁·서동학·박성원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예산결산특위위원들은 “특위위원들에게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감시를 통해 도민복지를 실현할 책무가 있다”며 “우리 앞에 놓여진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형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서민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 도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위원 7명 선임

도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심사



충북도의회는 7월 9일 실시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장엔 산업경제위원회 박문희 의원이, 부위원장엔 행정문화위원회 송미애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최경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기창 의원, 교육위원회 황규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윤리특위 위원들은 선임일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들을 심사하게 된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문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늘 도민과 소통하고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겠다”며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여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 지원 특위, 청주공항 활성화에 본격 시동

터미널 증축 · 계류장 확장공사 현장점검 등 지원방안 논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7월 4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에어로-K의 향후 운영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공항을 직접 방문해 인프라 구축 현장을 점검하는 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7월 4일 청주공항 내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서 충북도와 에어로-K,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국내선 여객터미널 증축사업과 계류장 확장공사 등 현재 추진 중인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남창희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과 신정환 에어로-K 운항기획본부장으로부터 공항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과 항공기 노선운영, 인력충원 등 향후 운영계획을 청취하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청주공항 관련사업 현장을 직접 살피고 에어로-K의 향후 계획을 듣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청주국제공항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 특위, 광역소각시설·지역난방공사 현장점검

회사자체 시설 개선·철저한 운영 통한 저감대책 집중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9월 2일 청주 광역소각시설과 지역난방공사 현장을 방문해 저감대책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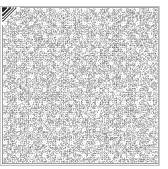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는 9월 2일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청주시 서원구 소재 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를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복잡·다양하지만 민·관·정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도민 생명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사 자체의 시설 개선과 철저한 운영·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의영 특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집행기관과 적극 협의해 충북도 자체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위위원들은 7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으로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내·외부요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도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도의회 교육위, 제천시역 고교 교육력 향상 정책토론회

학점제 시행 따른 과목선택 확대·창의인재 양성 등 의견수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8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안전체험관에서 '제천시역 고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7월 8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안전체험관에서 도의원과 제천시의원,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시역 고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하는 사회변화와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창의인재 양성과 교육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창의인재 양성, 교육혁신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천 고교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자리가 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박사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김응현 장학사가 '활짝 피어라'란 주제발표에 이어 충북도교육청 김도현 장학관, 세명고 권순형 교감, 제천여고 박원숙 교사, 제천고 김기복 학교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정광희 박사는 제1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핵심 역량교육, 개별 맞춤형교육, 모두의 학습 성공을 지원하는 공공 교육체제, 옴니채널의 4.0교육체제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고, 4.0교육을 위한 디지털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디지털학교 설립 운영, 중앙디지털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응현 장학사는 제2주제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수요

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정 실현으로 학생들의 배움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달라진 입시 전형으로 대입에도 유리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도현 장학관은 제천시역의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함께하는 공공교육 과정 과목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설립은 지역 전체 고등학교의 교육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지역 학생들의 성장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학교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순형 교감은 "캠퍼스형 고등학교 추진이 미래형 교육실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상생과 4교 4색 일반고의 정보 공유,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등을 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교육적 불평 등을 겪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는 미래교육을 만드자"고 제안했다.

박원숙 교사는 "학교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기본적인 생활환경 시설의 부족과 노후시설, 안전한 휴게공간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많았다"고 강조하며, "교육 공간의 혁신을 주제로 배움의 공간에 대한 정책연구와 학교변화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기복 학교운영위원은 "고교 학점제의 멋진 비전에 공감하고 있지만 고교 학점제가 과목 선택권 확대를 넘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학과 진로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수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고교 간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경험을 쌓아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친 박성원 의원은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 고교 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와 창의인재 육성, 개인 맞춤형 교육, 제천의 고교 교육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환경소방위, 산지활용·미래 환경변화 대응 정책세미나

단양군 석회석 채굴부지 활용방안 모색 ... 다양한 의견 수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7월 16일 단양평생학습센터에서 '산지활용 및 미래 환경에 대응한 단양군 석회석 채굴부지 활용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7월 16일 단양평생학습센터 대회의실에서 '산지활용 및 미래 환경에 대응한 단양군 석회석 채굴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지활용과 석회석 폐광자원의 지역자산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 도의원,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북연구원 이경기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세미나는 진정수 한국산지보전협회 산지연구센터장과 전병제 한얼경제사업연구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충북도의회 오영탁 의원, 지용관 충북도 산림녹지과장, 신상균 단양군 산림녹지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산지관리법」 조속개정, 채굴완료부지 관리·유지, 장기계획 수립 법제화, 폐광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인구 등의 다양한 지표 하락세에 따른 주민행복도와 삶의 질 개선노력 필요, 100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근시안적 행정이 아닌 치밀한 발전전략 수립 절실 등이 제기됐다.

옥천·보은·영동 남부3군 교육균형발전 정책간담회 개최

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위해 잔걸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월 19일 옥천군청 다목적회관에서 옥천·보은·영동 남부 3군 교육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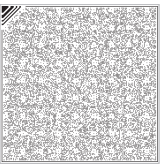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월 19일 옥천군청 다목적회관에서 옥천·보은·영동 남부3군 교육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황규철 의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김상열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주병호 예산과장, 옥천·보은·영동교육지원청 박준석·이혜진·박천호 교육장, 해당지역 교장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와 토론을 펼쳤다.

토론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육경비 보조금에 불이익을 받았던 옥천·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군 지역에 연간 약 30억원의 교육균형발전 예산지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은 또 지역별 과제 발굴과 사업 선정을 통해 실효성 높은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황규철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급하다"며 "도내 6개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청주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개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문’ 등 제안 만장일치 채택



충북도의회는 7월 18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주관하고 충북도의 현안들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북도의회는 7월 18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주관하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또 이날 ‘출산장려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제정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개선 건의안’,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건의안’ 등 9건을 처리했다.

장선배 의장은 “시멘트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해당지역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제안해 협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했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우리 지역 혁신도시와 오송·오창 등지로 이전한 종사자들의 정착과 지역인재 육성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참석해 시·도의의장단을 환영하고 충북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환경소방위, 의정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역할 및 활동 개선방안 모색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를 주제로 의정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8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역할 재정립 방안 의정학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학술연구용역은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활동 시 단순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역할 및 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것이다.

연구용역결과 우선 기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과,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응급·인명구조사 등의 소방관련 자격을 취득하도록 소방서별 지원 전담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완 위원장은 “집행기관과 논의하여 마을 자치소방 실현에 맞도록 의용소방대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탁·허창원·육미선·이상식·이숙애 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노력 ‘결실’



충청북도의회 오영탁·허창원·육미선·이상식·이숙애 의원(수상자 왼쪽부터)이 7월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충청북도의회 오영탁·허창원·육미선·이상식·이숙애 의원이(수상자 외쪽부터) 7월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체한 이번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수의정대상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정책대안 제시, 주민행복 제고를 위한 입법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이번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5명의 도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위활동을 전개하고 도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건의문 채택에 앞장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영탁 의원은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괴산담 관리권 이관 촉구와 소방복합유치센터 유치 건의안 채택에 기여했다.

허창원 의원은 대집행기관 질문 등을 통해 도정에 건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 의원은 충청북도 녹색건물 조성 지원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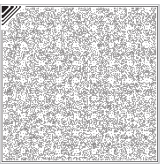
육미선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 등 여성복지, 성인지, 공공보건 분야 발전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육 의원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등 7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상식 의원은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6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숙애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학생들의 노동 권리의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수상자들은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픔을 함께하며 언제나 지역과 도민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선배 의장은 “도의회 31명의 의원들이 모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셨고, 대표로 다섯 분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면서 “앞으로도 의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74·375회 임시회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74회 임시회 회기 중인 7월 9일 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건」을 심사하여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을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이어,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한 동의를 건」을 심사하여 특위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시·도의회 간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 지역포럼 운영방식 개선 필요, 민간교육 정보 사전 전달 철저 등을 요구했다.

또, 도 및 시·군의원간 정책간담회 정례화, 원거리 의원 지역상담소 설치 검토, 대집행부질문·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산업 및 민생탐방 사업 확대추진, 정책토론회 운영확대, 의회교실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제375회 임시회 중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여 사무감사 일정을 11월 11일 실시하기로 하고, 예산 집행상황,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상황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감사하기로 했다.

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심사결과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576만3000원이 증액된 4억8756만3000원으로 15.6%가 증액됐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113억8576만원으로 0.23%가 증액됐다.

증액내용은 국제교류 통역비 및 공무국외여행 여비 2050만원과 행정장비 구입비용 650만원이다.

위원회는 또 제2차 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변경의 건」을 심사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변경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 원안 가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2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74·375회 임시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폭력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대책마련 촉구



위원장
박상돈 의원



부위원장
최경천 의원



박형웅 의원



심기보 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욱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7월 18일 청년정책 연구를 위해 충청청년희망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상상캠퍼스'를 방문해 문화·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시설을 견학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기타 현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도내 결혼이주여성 가정에 대한 사전교육, 수시상담 등 사후관리 원스톱 운영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과 청주농산물검사소 조속히 운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충북학사 입사생 선발과 관련하여 취업준비생 등 특수면학자에 대한 배려, 투명·공정한 선발, 학업편의 적기제공 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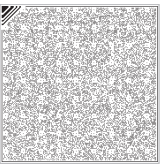
또, 청주상당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수원시에 소재한 청년문화복합공간 조성현장을 점검·시찰했다.

또한, 8월 23일 실시한 제375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의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 “소요예산 분석 미흡으로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 시 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심기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는 타 시·도 재해 시 사회복지기금을 통한 구호금품 지원과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생명나눔 실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고,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조정해 수정 가결했다.

또,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체육관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74·375회 임시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사회적기업 소개할 다큐멘터리 섭외 등 요구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제374회 임시회 중 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상정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공보관 보고에서는 무예마스터십 홍보비와 관련해 “무예도장 운영 관계자 홍보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맞춤형 홍보를 주문하고, 도내 사회적기업을 소개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섭외 검토, 도정홍보 관련 균형 있는 지역선정과 시·군 지역신문을 대상으로한 홍보활동 강화, 왜곡·부정보도 해명사례 확인과 올바른 사실전달 등을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보고에서는 임시정부 요인 동상제작 사업 추진에 지역 미술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 안정적인 주택공급 대책마련, 경쟁력 있는 체육시설 조성, 군단위 물놀이 시설 지원 등을 요구하고, 무예마스터십 대회와 북한 선수단 참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남북 교류기회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관 보고에서는 불법촬영 사건의 적정한 징계처벌과 지도감독을 강조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의 활성화를 당부했다.

또한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 제375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8월 22일 실시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행정국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문화체육관광국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회(WMC) 지원비 1억2600만원과 충북문화관 운영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정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이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이어, 연철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과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수정 가결했다.



위원장
전원표 의원



부위원장
허창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철흠 의원



이옥규 의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8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74·375회 임시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위원장
박우양 의원



부위원장
임영은 의원



박문희 의원



이상식 의원



이상정 의원



하유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23일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개선점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상정된 5건의 안건들을 심사하고 관련 시설들을 견학·점검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7월 9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서는 사안별로 원활히 진행된 사업에 대한 격려와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분야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제로페이 사업 홍보·안내, 우수시장 박람회 타 시·군 순회 개최,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간담회·공청회 실시 등 충북경제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다.

농정분야의 주요 내용은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 적극추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및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확대, 도내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등 활력 있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한 농정정책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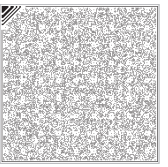
또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음성 수박연구소 등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제37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8월 22일 실시한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추경예산으로 요구된 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영은 의원과 이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8월 23일에는 청주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청주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을 청취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74·375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등 촉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표명했다”며 “충북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앞서가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119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한 엄중한 지휘책임과 근원적 대응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노후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에 대한 법적제제 강화 등 제도적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7월 16일 '산지활용 및 미래 환경에 대응한 단양군 석회석 채굴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산지활용 및 석회석 폐광자원의 지역 자산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했다.

또한, 제375회 임시회 기간 중인 22일 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운행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도민 건강·안전과 관련한 사업이 많이 편성됐는데,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남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8월 23일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8월 27일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활동 시 단순 보조 역할에 그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 문제점을 분석해 새로운 역할 및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역할 재정립 방안 의정학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위원장
이수완 의원



부위원장
윤남진 의원



김기창 의원



연종석 의원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월 23일 증평군 에듀팜 관광단지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교육위원회

제374·375회 임시회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제정



교육위원회는 7월 11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교육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장
이숙애 의원



부위원장
서동학 의원



김영주 의원



박성원 의원



이의영 의원



황규철 의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7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도교육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는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발굴에 대한 예산 집행과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진단·점검을 강조했다.

이어, 지역교육청 청문관제도의 필요성 재고와 교육공무직 휴가·병가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라돈검사 측정학교 관리와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등을 당부했다.

또, 특성화고 학생의 실습현장 안전상황을 파악하고,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실습현장의 안전조치 운영지침 수립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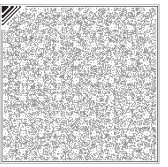
또한, 교육위원회는 제37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8월 23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인식표의 크기·문구 등을 수정 가결했다.

또, 서동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10억2464만9000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나 사업계획 효과가 의문시 되는 SW교육모델교실구축 사업에서 공립5개교, 사립 1개교 등의 예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제375회 임시회 회기 중 두 차례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심사·의결했다.

8월 26일 실시한 제1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충북도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도비 분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지원, 침체된 지역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미세먼지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정현안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89억원(7.6%)이 증액된 5조3445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비 138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

치지원비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1억6256만원을 삭감했다.

8월 28일 실시한 제2차 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정부세제영여금 교부금 정산분과 2018년 지방세 결산에 따른 추가 전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했다. 학교 안전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학교 공간혁신과 미래형 첨단교실 구축, 지방채 상환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10억원(4.1%)이 증액된 3조785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총 4건의 예산을 삭감·조정했다. 주요 삭감내용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미래인재과 소관 SW교육모델교실구축예산 9억6000만원의 반액을 삭감한 4억8000만원을 확정했으며, 미래인재과 소관 SW교육환경구축지원비 등 3개 사업을 전액 삭감하여 요구액 15억464만9000원 중 10억2464만9000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월 2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제374회 · 제375회 임시회 주요 처리의안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과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연철흠 의원)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이상식 의원)

[제안이유]

- 지식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 최근 신규로 수행하는 정보통신, 문화·관광·콘텐츠산업과 과학기술 및 4차산업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식 의원)

[제안이유]

-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김영주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경우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연철흠 의원)

[제안이유]

-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과 더불어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여가문화 조성과 여가활성화를 통해 충북도민에게 여가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자 함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박우양 의원)

[제안이유]

-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용 중인 조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직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상돈 의원)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문희 의원)

[제안이유]

- 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진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용 중인 조례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정비는 물론 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사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연종석 의원)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상교 의원)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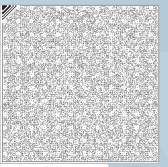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축적된 민간전문가 참여를 보장하고, 실무위원회(문화·체육·경제·농업등)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송미애 의원)

[제안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허창원 의원)

[제안이유]

-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자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여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수완 의원)

[제안이유]

-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충청북도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식 의원)

[제안이유]

- 글로벌 경제의 국제분업에 대한 유동성 확대와 대일본 소재·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충청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윤남진 의원)

[제안이유]

- 대·내외적 뷰티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뷰티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제안이유]

- 일본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일본 전범기업의 행태를 명확히 인식하고자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 고취하고자 함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욱 의원)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기보 의원)

[제안이유]

- 강원도 산불피해 등 타 시·도의 재해 발생 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재해구호기금)에서 구호에 필요한 금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표발의 : 서동학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충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옥규 의원)

[제안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원과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퇴직시기를 정년이 1월에서 6월인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인 경우 12월 31일로 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영은 의원)

[제안이유]

- 충북도는 지난 2017년 5월 곤충종자보급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8년 8월부터 올 7월 말까지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신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운영 근거 마련과 센터의 기능·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서동학 의원)

[제안이유]

-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자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정부는 전범기업을 비호하며 우리나라에 경제전쟁 포고를 함에 있어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일본 전범기업 생산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고자 함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허창원 의원)

[제안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등급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 청남대 내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판매시설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판매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충청북도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제안이유]

-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실천과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충청북도 공무원 육아문제는 너무 사소한것인가!



이 옥 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지난해 9월 이시종 지사님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은 지금도 설치되지 않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지사님과 간부 공무원들을 재차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유아를 둔 도청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를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매우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

다. 육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충북도는 법령에 명시된 고용주의 의무를 망각한 채 “도청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인근 어린이집의 경영사정이 안 좋아진다”는 등의 답변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영유아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충청북도 미래를 위한 기초적인 첫걸음입니다. 충북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준비를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충북도를 찬찬히 들여다 보시고 충북도의 미래세대인 도청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사님께서 충북도 미래를 위해서 초석을 쌓는 뜻깊은 사업일 것입니다.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위한 유기질비료 도비지원 촉구



오 명 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최근 우리 농촌지역은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와 과수화상병을 비롯한 각종 병충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농가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의 예산감소를 우려하며 충북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단양군의 경우 총 3885 농가에 1만1753톤의 유기질비료 공급 계획으로 국비 62%, 군비 3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비는 국비지원 감소 비율에 따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농가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충북도의 농업군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축산부산물을 자원화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경우 비료화가 되지 않는다면 소각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반드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충북의 경쟁력, 생활속 친일잔재 청산이 우선



이 상 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는 국제협력과 신뢰를 깨뜨리고 결국 경제보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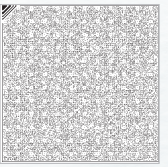
충북도는 반도체와 그 협력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내 관련 기업의 피해를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본 독과점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향후 예상되는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마련

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계기로 충북경제의 로드맵을 새롭게 점검하고 친일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한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빈도를 떠나 주민들의 정신을 담고 있는 지자체 상징곡에 대한 실태파악 및 변경추진과 더불어 도내 각 시·군은 물론 외부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도민의 민족정기를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을 제한하고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제한은 물론 해당 제품의 사용 억제와 함께 학교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범기업 생산제품의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정책의 재정립 필요



이 숙 애 의원
(교육위원회)

2019년 7월부터 시행중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지원 체계 구축방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장애인의 개별특성, 욕구, 환경 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의 재정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청각장애학생들에 한해서는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선정기준 제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시고 개정 전이라도 학습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군 이양사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탈 시설정책으로서 지역사회 내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되, 중앙정부에 국가사업으로의 환원을 적극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공동생활가정의 교체인력 배치 등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접근성 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 파악을 위한 사전조사와 충북도·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가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1등 충북’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촉구



김 기 창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방기본법 제5조에 시·도지사는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화재현장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재난안전체험관 사업은 2013년 총사업비 260억원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2015년도에 설계비 13억원 중 11억원의 도

비를 제외한 국비 2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체험관 건립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근거로 충북, 경남, 제주를 2016년 8월 중형으로 결정되어 당초 26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됐던 체험관이 120억원의 예산으로 반쪽짜리 체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비지원에 대한 규모는 중형으로 정해졌지만 체험관 건립 이후 유지관리 비용 등 운용예산에 대한 면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는 대폭 축소되었지만 소프트웨어인 운영부분은 선도적 모델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 청년 위한 예산 여전히 미흡



최 경 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여전히 청년들을 위한 예산은 미흡하고 각종 청년정책은 단기처방이며 일자리 정책도 양질의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도 2/4분기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4.1%입니다. 그러나 전국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6%로 전체 실업률의 2.5배에 이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이 주체이자 적극적 참여자로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그리고 실행까지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미래 자원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도내 담당인력 증원, 조직의 확대·개편, 청년정책담당관을 도지사 직속으로한 운영·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충북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기획·참여하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등을 기획·생산·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소통공간과 복합문화공간 등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대형유통업체 유치 현도면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허창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청주시의 모양이 거대 자본과 부동산업계에 의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개발 이익을 통한 사업들에 의해 구도심은 계속해서 낙후되고 개발이익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신도심권에만 개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테크노폴리스 지구를 개발하면서 대형유통업체 유치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주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청주에도 대형

유통업체를 유치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형유통업체 입지로 청주시 현도면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현도면은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대전과 세종을 배후도시로 두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라도 비교적 저렴한 지가에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교통이 발달되어 교통정체도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전과 세종이라는 배후 도시까지 시장으로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도면에 복합종합쇼핑몰을 유치한다면 아파트 분양을 위한 유치가 아닌 청주시의 균형발전과 기존 중·소상인들의 보호와 더 심해질 교통의 문제까지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방교육 몰락시킬 목도고 폐교 방침 백지화 촉구



윤남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목도고등학교는 명실 공히 괴산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최근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중심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농산촌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고려한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획일화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

는데, 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기준에 따르면 1면 1교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 동문회,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한 추진

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일 학부모 61세대 중 48세대의 동의를 받아 의결기준에는 충족했으나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등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유형과 시기 등에 대한 설명회·간담회 추진 상 부적정한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목도고 폐지를 위한 학부모 동의와 2020학년도 정원을 미배정하고 행정절차가 이미 이행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우 교육감님!

괴산군민들의 바람은 현 상태를 존치뿐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지키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충북 백년대계 위해 중부권 광역철도노선 조속 건설을



임영은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각종 철도망과 도로의 건설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됐고 이러한 수도권의 집중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도의 철도는 충북선만이 충북을 관통하고,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와 평택·제천 고속도로 뿐이지만 인근 충남은 철도와 서해북선철도가 개통예정 중이고, 수도권과 전철노선이 연결되었으며,

세종시는 KTX역을 신설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제시한 ‘중부권 광역철도노선’이 건설되면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인구유입이 증가될 것이며, 청주국제공항과 혁신도시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이곳에 대한 활성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경제 4%달성을 위해서는 우량기업 유치해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높이고 청주국제공항과 강호축을 통한 물류운송의 전진기지로 삼으며,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황금노선인 동탄~안성~진천~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중부권 광역철도노선’이 반드시 추진돼야 합니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과 노력 필요



박 상 돈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에서 오창 만득이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 학대와 노동착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2017년 9월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후 장애인들의 인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1개소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충청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인력증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대피해 장애인들의 빠른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내실 있는 쉼터 운영이 이뤄져야 합니다. 학대피해 장애인들이 학대현장과 유사한 상황으로 회귀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적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보호를 받는 입장이니 참는 것이 당연하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은 그래도 선량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편견이 장애인 차별과 학대상황의 방관자로 만드는 일차적 원인일 것입니다.

이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할 것입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충북도의회는 7월 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전체 도의원과 이시종 도지사, 김병우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충청북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충북도의회가 개원 1년을 맞아 7월 9일 도청 구내식당에서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전체 도의원과 이시종 도지사, 김병우 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장선배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 2년차를 맞는 도의회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땀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충북도의회 여성의원들이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 '2019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해 의정역량을 다졌다.

충북도의회 하유정·송미애·윤남진·육미선·이옥규 의원(왼쪽부터)이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개최된 '2019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워크숍'에 참석해 의정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충북대표를 맡고 있는 윤남진 의원과 여성도의원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원들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현황과 우수정책들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번 워크숍 경험을 토대로 여성이 꿈꾸고 만드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집행기관과 함께 표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과 도의원들이 8월 15일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며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8월 14일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을 방문해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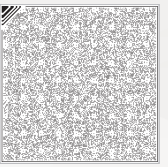
충북도의회 의원들은 7월 22일 상당공원에서 열린 '단양에서 영동까지 천리길' 충북종단 대장정 발대식에 참석해 참여자들과 함께 포퍼먼스를 펼쳤다.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 2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견'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협의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8월 2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 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8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협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5일 진천군에 위치한 대원제약과 한화큐셀 진천사업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기업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8월 23일 SK하이닉스를 방문해 기업의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생산시설을 점검·견학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8월 2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7월 4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된 청주 원평초등학교를 방문해 대체급식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8월 30일 충주 성심학교를 방문해 운영현황과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상 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식량산업·민족농업,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우리나라는 1970~80년대 정부의 산업화와 도시화 정책으로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이농(離農)현상이 발생하여 노동력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지난 50년간 OECD 평균보다 높은 농업생산성 증가를 달성하는 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외국의 값싼 농축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게 만들었고, 국내 농업과 농민은 가격 폭락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결국 1980년대 말 도시근로자 소득의 94%에 이르던 농가소득은 현재 64%로 뚝 떨어진 상태이다.

필자는 오랫동안 농민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고심하고 대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중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수당의 도입, 지역푸드플랜의 조속한 도입, 농업분야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협력증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왔다. 이 같은 정책들이 조속히 도입돼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자치단체별로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의 도입이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발생하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연간 27조원)으로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해 주자는 것이다.

이는 농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중·소농 등 어려운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유지시킬 수 있게 하며, 수당을 지역화

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한 일거양득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등이 농민수당 지급을 결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고 충청북도의 경우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고, 필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9월 4일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둘째, 지역푸드플랜의 조속한 도입이다. 지역푸드플랜은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유통·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여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종합적 관리시스템이다.

지역푸드플랜은 공공기관 급식확장 및 로컬푸드 영역확대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가능한데, 향후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충청도와 각 시·군 공공급식센터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농업분야 남북교류 활성화이다. 현재 농업분야 남북교류는 제천시의 금강산 사과과수원 조성사업, 옥천군의 남포시 묘목 지원사업, 농민회의 통일쌀 못자리비닐 지원사업 및 통일트랙터 보내기 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우리 도는 유기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북한과의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교류가 필요한 시점으로 조속히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적정성 꼼꼼히 따져봐야



윤 남 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적정규모학교’는 적절한 학생 수와 교육시설을 유지해 교육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절차는 소규모학교 대상으로 통폐합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지역 및 학교 여건 그리고 통폐합 당위성 등 사전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적정규모육성 기본방향, 대상학교 선정 등의 계획수립 절차를 거친다. 이후 설명회, 간담회를 추진 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최종 확정을 하게 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세부 기준에 따르면 분교장을 포함해 1면 1교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 및 동문회 등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면이나 벽지 지역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로 충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권고기준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해 학부모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사회 여론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의 대상, 범위,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동문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등 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사업시행 초기부터 학교 통폐합을 통한 재정 절감 측면만 부각되거나 농촌 지역 교육 황폐화로 인해 교육적 목표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어촌 지역 그리고 도시의 확장에 따른 학교시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폐지 정책으로는 미래 교육 문제해결의 근원적 대안이 될 수 없고 다양한 갈등만을 양산할 것이다.

이번 괴산 목도고 폐지 결정은 일부 학부모와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간담회로 지역 주민들의 학교폐지 진행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문회와 지역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폐지 수순을 밟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정규모학교 추진 기준에 미달하는 충북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같은 처지에 놓여 교육당국과 대치하고 학교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책시행대에 오르는 일만 반복될 소지가 다분하다. 결국 교육부가 주장하는 교육격차 해소가 아닌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정책이란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성에 기인한 교육정책은 눈앞의 이익과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동문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학교의 전통을 지키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야말로 적정규모학성이라는 정책 하에 학교가 사라지는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그 누구도 반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 신청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신청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에서 방청권 교부
- 의사담당관실 :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